

# 빗속 여의도,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탄핵하라!”

✎ 박성식 | ⓒ 승인 2016.12.09 12:45

## 표결날인 오늘 국회 정문에서 집회 열린다... 긴장감 고조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를 마친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500여개의 만장을 들고 국회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앞에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2천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들은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 마련된 집회무대를 중심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국회 탄핵”을 촉구하며, 밤 10시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수백 개의 만장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으며, 참가자들은 만장을 앞세워 국회를 둘러싸는 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 차벽과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후 시민들은 국회 앞 3거리 차벽 앞에서 수천 발의 불꽃을 쏘아 올려 분노를 표했고, 방 송인 김제동의 사회로 시국토론도 이어갔다.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는 오늘 오후 3시에도 국회 앞에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대거 모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는 물론 어제와 달리 바로 국회 정문 담장에 집회 무대가 설치돼 한층 더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 하루다.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참여한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국회 탄핵'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참여한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국회 탄핵'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를 마친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500여개의 만장을 들고 국회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를 마친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500여개의 만장을 들고 국회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를 마친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며 국회를 향해 행진한 가운데 경찰의 차벽이 2중 3중으로 국회 앞을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비가 오는 곳은 날씨 속에 많은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시국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방송인 김제동 씨가 사회를 봤다. © 변백선 기자



국회로 향하는 길이 경찰 차벽에 가로 막혀 있는 모습. © 변백선 기자



비가 오는 곳은 날씨 속에 많은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시국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방송인 김제동 씨가 사회를 봤다. © 변백선 기자



비가 오는 곳은 날씨 속에 많은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시국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비가 오는 곳은 날씨 속에 많은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시국대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 탄핵 가결'을 요구하며 불꽃을 터뜨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성식 kctuspeech@hanmail.net